

제45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연설

전국의 소방공무원 여러분, 의무소방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마흔다섯 번째 맞는 소방의 날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우리 국민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늘 걱정하는 마음으로 뒷바라지하고 계신 가족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소방방재 역량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소방관들을 한국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고, 우리의 시스템과 장비를 도입해 가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제가 취임할 당시, 대구지하철 화재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 드렸습니다.

참여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는 역시 2004년 소방방재청의 신설입니다. 흩어져 있던 소방 방재 업무를 통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 시스템에 의한 선진형 재난관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는 예방과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설물 안전관리기준을 표준화하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후복구 중심의 재난 관리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고나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재난정보관리의 고도화와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소방방재청 개청 이전에 비해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64%가량 줄었습니다. 64%라는 이 숫자는 저도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국정브리핑에 올라와 있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 아마 기상이변이 좀 적었다는 행운도 있겠지만, 이 모두가 여러분이 땀 흘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재'의 발생과 피해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난복구체계도 새롭게 혁신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처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지급 소요기간도 9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풍수해 보험제도도 작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선 복구, 후 정산'을 위한 수해복구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의식지수 개발 등을 통해 국민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소방인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방인 여러분,

정부도 여러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지난 9월 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진료비 감면은 물론 소방인의 특수성에 맞는 건강관리가 가능해진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내년에 화상치료센터까지 완공되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위직의 근속승진 확대,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등 인사와 보수 문제를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하고,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방관서와 장비의 확충으로 소방 취약지역도 줄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3교대를 통한 근무 부담 완화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소방 인력을 19% 정도 늘렸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건강조차 돌보기 어려운 여러분을 보면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관건은 인력의 증원입니다. 국가 기능이 고도화되고, 공공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소방 분야뿐만 아니라 인력이 더 필요한 분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증원된 공무원은 5만 7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교사가 절반이 넘고 나머지도 경찰·보건·환경·집배원·고용지원 등 대국민서비스에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작은 정부'에 집착해서는 이분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도 없고, 국민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소방방재 분야는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충분한 인력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안전과 안심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소모적인 정부 크기 논쟁보다는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줘야 할 것입니다.

제 임기 동안 이 모든 문제를 다 완결하지 못한 것을 무척 아쉽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공직자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권력을 가진 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국민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도 물론 소방관서가 존경을 받았겠지만, 앞으로 소방관서의 봉사가 커질수록, 역할이 커질수록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와 더 큰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공무원들 인력을 늘려 달라고 할 때, 인력 부족을 얘기하면 국민들은 먼저 서비스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큰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은 먼저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 선생님들도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교육환경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닭이나 달걀이냐의 논쟁과 비슷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지만 공무원들이 먼저 좀더 열심히 해서 증명해 보이고, 신뢰를 받고, 그리고 국가의 지원을堂堂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근무여건상의 여러 어려움 같은 것도 여러분 기관의 업적이 이 수준으로 계속 간다면 틀림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만듭시다.

다시 한번 소방의 날을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